

# "배 한 알에도 땀이 땀다"...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일손 부족 농가에 힘 보태

윤 최용진 기자 | 승인 2025.06.19 22:21

배 봉지 씌우며 구슬땀...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영농철 맞아 농가 지원 봉사활동 펼쳐



【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광주지사는 19일 영농철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 현장을 찾아 영농도우미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광산구 소재 배 과수원을 찾은 광주지사 임직원 10여 명은 배 봉지 씌우기 작업에 참여해 구슬땀을 흘리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전했다.

현장을 함께한 한 직원은 "봉지 씌우는 일이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일인지 몰랐다. 팔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지만, 농민이 환히 웃는 모습을 보니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활동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농가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지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김철상 지사장은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는 단발성 지원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광주지사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농촌 지원과 상생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땀 흘리며 농민 곁에 서는 이 활동이, 공공기관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임을 다시금 실감했다”고 강조했다.

[youngjin6690@hanmail.net](mailto:youngjin6690@hanmail.net)

저작권자 © 강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용진 기자